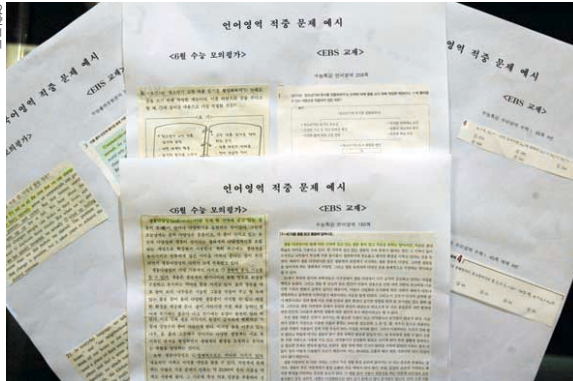


# 스스로 사교육 시장에 뛰어들어버린 교육 당국

글\_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duckhwan@mail.sogang.ac.kr

지난 6월 초, 전국의 고등학교에서는 교육 당국의 주관으로 최근에 보기 드물었던 '수능 모의고사'가 치러졌다. 그동안 교육 당국이 철저히 금지했던 탓에 어쩔 수 없이 사설 학원에서 치르는 수능 모의고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수험생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에 교육 당국이 특별히 스스로 나서서 모의고사를 치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된 2005학년도 수능시험 모의평가에서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내용이 73.3~86.7% 반영된 수능문제들

는 이유는 불안스러워 하는 학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다양한 선택 과목을 허용하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되는 수능을 미리 점검하기 위한 모의시험이었고, 힘없는 학생들은 그런 점검에 동원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과연 'EBS 수능강의'가 얼마나, 어떤 식으로 반영될 것인가였다. 언어 영역의 경우에는 무려 86.7%가 반영되었다고 한다. EBS 측의 주장에 따르면, "전체 60문항 가운데 EBS 교재의 지문을 활용한 것이 13문항, 내용을 활용한 것이 9문항, 유형을 활용한 것이 28문항, 자료를 활용한 것이 2문항 등 52문항이 EBS 수능강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는 것이다. 물론 수능에 '반영'되었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쨌든 지문, 소재, 어휘, 자료 등을 활용한 비슷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출제되었다는 뜻이다. 교육 당국은 11월에 치러지는 '진짜' 수능도 이번과 비슷하게 출제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공정거래 원칙에도 어긋난 정책

본래 EBS 수능강의는 '2.17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가장 중

요한 핵심 정책으로 시작되었다. 연간 10조 원에 육박한다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 당국이 직접 EBS와 인터넷을 이용,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에게 수능강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미 1997년에 실시했던 '위성 과외방송'의 실패를 경험했던 교육 당국은 사설 학원에서 '스타'로 인정된 강사

들을 대거 투입하고, 수능 강의를 실제 수능과 연계하겠다는 쉽게 외면할 수 없는 '미끼'를 던져 주었다.

그 뿐이 아니었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을 학원에 가지 못하도록 밤늦게까지 학교에 강제로 묶어두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인터넷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접속 폭주에 따른 '대란의 우려'를 내세워 장관까지 나서서 긴장감을 연출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영상 강의 동시 접속자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1만 명을 넘지 않았던 모양이다. 수능 강의를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보도가 잇달았고, 의미도 분명하지 않은 통계 자료를 내놓으면서 수능 강의를 사교육비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는 자화자찬(自畫自讚)도 대단했다. 수능 강의를 진행되면서 여기저기서 불평이 터져 나오자 이제는 방송 교재만이 아니라 강의 내용도 수능에 반영하겠다는 놀라운 정책도 내놓았다. 교육 당국의 어느 관리는 언론에 수능 강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협박에 가까운 폭언도 쏟아놓았다.

교육 당국은 사교육비 경감을 핑계로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서 사교육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버린 꼴이다. 50만 명이 넘는다는 가입자는 학교와 학원과 방송까지를 모두 장악한 교육


당국이 아니면 절대 확보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다. 거기다가 모두 갖추려면 30만 원 가까이 필요하다는 방송 교재를 마련해서 출판하는 것도 엄청난 이권이고, 인터넷과 컴퓨터 사업자들에게도 절대 놓칠 수 없는 기막힌 사업 기회를 제공해준 셈이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줄여준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서 공정한 경쟁을 차단해버린 후에 발생하게 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는 우리가 충분히 경험해 보았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공정한 시장 경제 원칙을 부르짖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교육 당국이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과 수능을 이용해서 사교육 시장을 독점해버려서 발생하게 될 결과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엄청난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선진국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될 문제일 수도 있다.

### 철저하게 비교육적인 정책

그러나, 이번 EBS 수능 강의에서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교육의 본질을 철저히 무시해버린 비교육적인 정책이라는 점이다. 우선 수능 방송은 교육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새로운 정보 교환 매체인 인터넷을 이용한 'e-러닝(e-learning)'은 정상적인 교육의 보조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교육에서 상호작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단점은 교육 당국이 애써 강조하고 있는 '쌍방향 방송'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런 교육이 놀라울 정도로 획일적이라는 사실이다. 심지어 획일성이 최고의 덕목인 군대의 정훈 교육에서도 교관과 부대원의 긴밀한 의사소통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그런데 다양한 개성이 길러져야 할 고등학생들 모두에게 오히려 똑같은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민주 사회에 사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효율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길러진 인재들의 획일적인 사고방식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요구되는 낡아빠진 덕목이다. 21세기를 이끌어갈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교육 당국의 무신경에 아연할 따름이다.

진정한 사교육 경감 대책은 사실 공교육을 제대로 살려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번 수능 강의는 철저히 공교육을 짓밟고 있다는 점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어렵게 교사 자격증을 받은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수능 방송을 틀어주는 것이 고작이다. 그것도 학력과 경력은 물론이고 심지어 공교육 현장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교사 자격증' 소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정체불명의 '스타' 강사들의 기막힌 강의를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고 있다. 강남의 학원가에서 영국에서 영어학 석사를 받았다고 뺨기던 강사는 놀랍게도 철저히 미국식 영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결국은 강사가 내세웠던 학력과 경력은 모두 '가짜'였음이 밝혀졌지만, 그런 사람이 스타 강사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EBS 수능 강의의 현실이다.

학생들의 부담도 여간 아니다. 학교를 모두 포기해버리지 않는 한 하루 24시간 방송되는 그 많은 수능 방송을 소화해낼 장사는 없다. 썩은 새끼줄에라도 매달려야 할 정도로 절박한 수험생들에게 방송 교재와 방송에서 출제가 된다는 사실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유혹이다. 학교에서 잠을 자두지 않고서는 그 유명한 수능 방송을 들을 수 없으니 어찌겠는가! 공교육을 포기하는 수밖에. 난마(亂麻)처럼 뒤엉킨 우리의 교육 문제를 단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없다. 학교를 교사와 학생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만은 확실하다. 



경북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전국수능모의고사 2교시 시험을 치르고 있다.